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법지품(梵志品) ①

載然而渡 절류이도
無欲如梵 무욕여법
知行已盡 지행이진
是謂梵志 시위법지

애욕의 흐름 끊어 건너고
욕심 없기가 범천같이
지어감이 이미 다한 줄 알면
이를 일러 범지라 한다

以無二法 이무이법
淨淨度難 청정도연
諸欲結解 제욕결해
是謂梵志 시위법지

둘이 없는 그 법으로써
맑고 깨끗해 못을 건너고
온갖 욕심의 결박에서 풀리면
이를 일러 범지라 한다

適彼無彼 적파무피
彼彼已空 피피이공
捨離貪婬 사리탐음

어딜가나 대상에 마음 두는게 없고
탐욕 음심 다 버리면 '범지'라 이른다

是謂梵志 시위법지

어딜가나 대상에 마음 두는게 없고
이경계 저경계가 다 텅비어
탐욕 음심 다 버리고 여의었으면
이를 일러 범지라 한다

思惟無所 사유무구
所行不痛 소행불부
上求不起 상구불기
是謂梵志 시위법지

오로지 때없는 천진을 생각하고
행하는 일에 번뇌 없어서
더 구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으면
이를 일러 범지라 한다

日照於晝 일조어주
月照於夜 월조어야
甲兵照軍 감병조군
禪照道人 선조도인
佛出天下 불출천하
照一切冥 조일체명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나고
갑옷과 병기는 군사를 빛내고
선정은 도인을 빛내며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서서
일체의 어둠을 비추시네

非剃爲沙門 비체위사문
稱吉爲梵志 칭길위법지
謂能捨衆惡 위능사중악
是則爲道人 시즉위도인

머리를 깎았다고 사문이 아니다
법에 맞아야 범지라 이르나니
이른바 온갖 악을 잘 버린 이
그를 곧 도인이라 한다

出惡爲梵志 출악위법지
入正爲沙門 입정위사문
棄我衆穢行 기아중예행
是則爲捨家 시즉위사가

악에서 뛰쳐나와 범지가 되고
바른 도에 드는 것이 사문이 된다
나의 온갖 더러운 행을 버리면
그를 곧 출가인이라 한다

若獨於愛 약의어애
心無所著 심무소착

만약 애욕에 의지한
아무런 집착도 마음에 없어
이미 버려 마음 바르면
이는 온갖 괴로움 없앤 것이다

身口與意 신구여의
淨無過失 정무과실
能捨三行 능사삼행
是謂梵志 시위법지

몸·입 그리고 뜻이
깨끗하여 허물이 없고
능히 신구의로 업을 짓지 않으면
이를 범지라 한다

若心曉了 약심효료
佛所說法 불소설법
觀心自歸 관심자귀
淨於爲水 정어위수

만약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밝게 깨달아 알고
마음으로 돌이켜 자기를 관하면
그것은 물보다 깨끗하다 한다

龍眼

범행스님 (팔달선원 조실)

구름은 한가ροι 하늘 가득 들고나니
(出入雲霧滿太虛)
원래 참된 상은 한 티끌도 없구나(元來
眞相一無塵)
거듭거듭 서쪽에서 오신 뜻 물으니(重
重請問西來意)
오직 마당에 있는 잣나무만 가리킬 뿐
(唯指庭前一栢樹).

달마대사가 전한 법은 말과 문자가 문
득 끊긴 '불립문자 언어도단'(不立文字
言語道斷)의 진리입니다. 본래 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설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입
니다. 입을 열면 이미 잘못 된 것(開口則
錯)이지요. 명(名)과 상(相)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내게 "불교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언어도단에 심행처(心行處)가
멸(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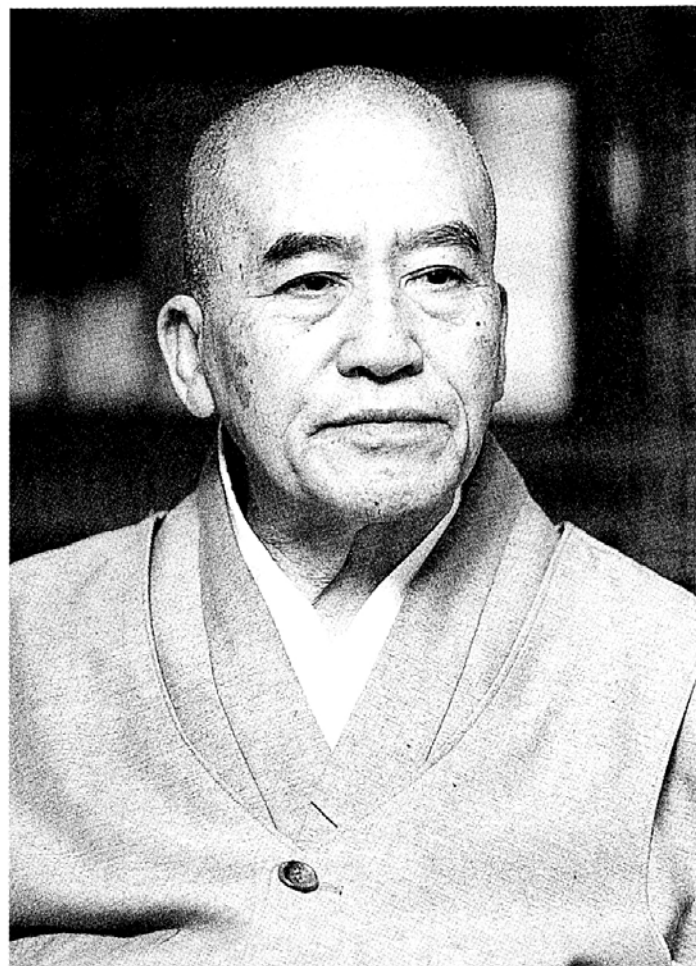
나는 법문을 잘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 그때 대중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근기에 맞는 떠오르는
말을 할 뿐이지요. 법은 그 자체로 존재
하는 것인데 새삼스레 말씀드릴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
든 것이 법문 아닌 것이 없어요. 온 세상
과 우주에 법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무슨 신동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후 열반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설한 것이 없다"고 하
신 말씀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성철스님
역시 열반중에서 "평생 많은 사람들을
숙였다"고 한 것이 이 뜻입니다. "원래
얻을 것이 없어요. 줄 것도 알 것도 깨칠
것도 없는데 무엇을 설할까 보냐" 이런
의미지요. 법문이란 것도 그 사람의 근기
에 맞아야 지혜의 쿤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한 그릇에 '밥 씻은 물', 꿀, 밥,
오줌을 넣으면 오물통, 꿀단지, 밥통, 오
줌통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그 사람에 맞는 방편을 설할 때
'참 법문'이 되는 겁니다.

한 생을 버려서라도 안되면 누수를 버
려서라도 반드시 드를 깨닫고 말했다는
공은 서원을 지니고 수행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조금만 일
러 주어도 '법의 문(法門)'이 열리고, 심
지어는 돌부리에 제어도 깨닫는 것입니
다. 결국 법이란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는 것이지, 남이 떠다 먹이는 게 아니
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행 체험담이 오
히려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수행의 3
요소는 잘 알다시피 대심심(大信心), 대
의심(大疑心), 대분심(大忿心)입니다. 나
의 경우는 신심으로부터 수행에 대한 확

고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게 출가를 했어요. 집
안이 넉넉해서 화화공장을 경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해 보았지요. 그런데 이상
하게 나이가 들어도 술·담배도 하지 않
았고 세속적인 즐거움에는 초연한 편이
었어요. 평소 몸이 약해 결혼도 하지 않
았지요. 그러다가 공장에서 열소가 터지
는 바람에 폐가 나빠졌어요. 당시 폐병에
는 약이 없어서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
었죠. 요양이나 할 생각으로 금산 태고사
를 찾았어요. 그때가 28세. 태고사에는
나의 첫번째 은사가 되신 포산(龜山)스
님이 계셨어요. 포산스님을 뵈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10권을 숙독하는 등 철학과 문
학에 나름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
하던 터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처
음 불교를 접하다보니 호기심도 들고 지
적인 욕구도 강하던 터라 토론은 2주일

· 1921. 2. 21(음) 경기 학생 생
· 48년 금산 태고사에서 포산스님
을 은사로 출가
· 52년 선학원 팔달선원 원장
· 64년 선학원 원장
· 71~75년 대한불교신문 사장
· 74~90년 선학원 이사장
· 79~80년 부산 금정선원 원장
· 조계사, 동화사, 불국사, 수덕사,
봉은사 주지 역임
· 현재 수원 팔달선원에 주석.



"대신심·대의심·대분심으로
'도 깨닫고 말했다' 서원 지니고
수행할때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정도 계속되었어요. 결과는 내가 읽고 들
은 철학·문학이 불교에는 필적할 수 없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예요. 철학·
문학 등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위대
하다는 서양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의 철학도 윤리도덕 정도의 가르침이었
어요.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 병이 업력으
로 인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역시 공업(共
業)임을 알게 되었어요. 스님은 업장을
소멸하고 건강을 찾고 싶거든 '불정심관
세음보살모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라고

떨어진 연산시장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
전에는 입맛이 없어서 공양도 겨우 했
는데, 시장에서 국수 떡 등을 배불리 먹었
어요. 그리고 나니 기운이 솟는게 몸이
나은 것을 느꼈지요. 불법의 위력을 처음
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한 후 포산스님
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포산스님은 앉
아서 10리 밖의 일을 보고 듣고 하실 정
도로 도가 높았어요. 포산스님은 '올마니
반메혹' 6자대명왕진언을 외우셨는데, 모
다라니를 계속 외웠어요. 스님에게서 주
력수행법과 함께 생식·벽곡 등을 하는
신선도를 배우기도 했어요.
당시 태고사에는 5명의 스님이 계셨
는데 모두 개성이 강하고 수행에 열심이었
어요. 숙명여대 교수를 지낸 정남조 스님
과 맹초라고 자임하던 스님, 한학자 출신
스님등 모두 학식도 높고 배울 점이 많
은 분들이었어요. 그중 맹초스님은 묵언
정진으로 병어리 시봉을 계속 했어요.
나는 그걸 따라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중
요하다는 생각에 잠도 안 자고 앉아서
부지런히 외웠어요. 아침·저녁엔 열방
스님들과 참선도 같이하면서 약 5주 동
안 일심으로 모다라니를 외웠습니다.
하루는 다라니를 외우고 있는데 비몽
사몽간에 유명한 일본인 내과과장인 나
리 타가 나타났어요. 내몽 이곳 저곳을
검진하고 나서 "다 나왔다. 아주 기쁘다"
고 말하더군요. 이 때 앉은 채로 몸이 깨
었는데,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웠어요.
문득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에 40리나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 - 생활불교편

菩提道次第

“대승불자를 위한
수행의 기술”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聖典)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던 스승 아티샤는 소송과 대승을 망라한 『보리도등
론(菩提道燈論)』을 결집하였고, 티베트의 스승 종카빠 또한 그 뒤를 이어 『보리도차제』라
는 책을 만들었다. 그 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도차제』에 의거한 여러 경전들이 만들어지
게 되는데 이 책은 위의 경전에 의거하여 선정이나 지혜, 공성 등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
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삼세 인과
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을 가진 티베트인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이 책은 생활 환경
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삼사도에 따른 수행의 길 제시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 즉,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수행의 첫 단계인 하사도(下士道)의 가르침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中士道)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친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上士道)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제하는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 조펠 스님 편역 ●
56년형 17쪽 400원
여시아문 펴냄

티베트의 학승 조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